

모바일 기반 군 위드유(WithYou) 프로그램의 융복합적 효과

우정희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Convergence Effect of Mobile-Based Military WithYou Program

Chung Hee Woo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였으며 C시에 소재하는 공군부대 부사관과 장교로 사전조사 42명, 사후조사 37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성폭력 상황에서 목격자효능감, 친구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의도를 촉진하기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친구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되어 모바일 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다. 모바일을 활용하여서도 군대 내 성폭력 예방에 중요한 목격자개입 인식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부대환경을 고려한 모바일기반의 교육콘텐츠개발과 적용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위드유프로그램, 목격자개입, 목격자 효능감, 도움의도, 모바일 기반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mobile-based military WithYou programs. The research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17 December to 23 December 2020. 42 and 37 members of the Air base in City C participated in the pretest and posttest, respectively. A video education program developed to inspire bystander intervention efficacy and the intention of helping peers and strangers was provided on mobile. The data collected before and after attending the program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mobile-based military WithYou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intention to help friends and others. Attempts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content using mobile devices for military personnel will be meaningful.

Key Words : Withyou program, Bystander intervention, Bystander efficacy, Intent to help, Moblie-based

*This work h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RF-2018R1C1B6002021)

*Corresponding Author : Chung Hee Woo(createjane@konyang.ac.kr)

Received March 8, 2021

Revised March 24, 2021

Accepted June 20,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 전반의 이슈인 성폭력 문제는 미군이나 한국군도 예외일 수 없는 쟁점이다[1,2]. 2000년대 한국사회의 성폭행의 증가율은 58.5%로 전체 범죄 증가추세보다 16% 포인트 높았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3]. 암수율이 높은 배경에는 수치심과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성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4].

효과적인 대책마련차원에서 본다면 동료의 성폭력 피해 정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보고를 [5] 간과하지 않는다면 유용한 보완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폭력 예방법은 피해자에게만 의존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조직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적극적인 바이스탠더(bystander)로 참여하게 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함께 적용된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6]. 바이스탠더는 사건이 발생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거나 본인의 의도 혹은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행동을 강화시키는 가해동조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행동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바이스탠더가 될 수도 있다.

2017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는 사회적 현상인 해시태그 미투(#MeToo)캠페인과 더불어 해시태그 위드유(#WithYou) 캠페인은 피해자 혹은 약자와 연대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7]. 이는 성폭력문제에 공동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바이스탠더 개입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바이스탠더가 적극적인 바이스탠더가 된다면, 바이스탠더는 비록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사회적 통제 지역활을 하는 것이다. 바이스탠더가 가해 행동을 저지하거나 피해자 돕기와 같은 바이스탠더로 행동하는 바이스탠더개입은 사회 공동체가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예방에 책임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6,8]. 즉 바이스탠더의 개입은 성폭력을 공동체의 이슈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막기 위해 동참하는 적극적인 바이스탠더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적 규

범을 바꾸는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9].

바이스탠더 개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미국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군인을 대상으로도 시도되고 있으나[1,10], 국내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거의 시도된 바 없는 실정이다. 성폭력 상황에서 바이스탠더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는데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통념, 바이스탠더 효능감과[11], 공감능력이[12]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바이스탠더 개입 의도는 실천적 의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개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발현의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교육프로그램에는 바이스탠더 개입 효능감을 촉진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1].

한편 교대근무라는 직무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위한 교육환경은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이며 특히 모바일 기반은 일반적인 온라인기반의 장점과 더불어 이동편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13-15]. 이는 다양한 직무특성과 환경적 제약이 있는 군인에게 [14],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시기에도 개별성, 상황적 적합성과 연결성을 적정수준 보장하는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17]. 군 구성원에게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을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할 경우, 성교육에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서 개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상황적 적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조직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군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황에서 바이스탠더 개입 역량과 의도를 성찰해볼 수 있는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바이스탠더 개입이라는 의미를 대중에게 가장 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군 위드유(WithYou)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모바일을 기반으로 제공하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이스탠더 개입의도를 촉진하는 효과 정도를 검증하여 군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상황을 목격한 군인의 바이스탠더로서 개입 역량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모바일 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대상자들의 성통념과 공감능력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참여자들의 바이스탠더 효능감 및 바이스탠더 행동의도 수준은 동료와 타인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1.3 연구가설

- 가설 1.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바이스탠더 효능감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 가설 2.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료에 대한 바이스탠더 도움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 가설 3.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타인에 대한 바이스탠더 도움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인들의 모바일기반 군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 전·후 성통념, 공감능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및 동료나 타인에 대한 바이스탠더 행동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가 적용되었다. 다만 성통념과 공감능력은 목적자개입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2.2 위드유프로그램

바이스탠더 개입을 촉진하려는 의도의 위드유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책임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29분 SCREAM (Students Challenging Realities and Educating Against Myths) Theater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였다[18].

이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의 바이스탠더 개입을 촉진하려는 교육프로그램은 1회기로도 진행될 수 있다[19]. 성폭력 발생의 원인과 결과, 바이스탠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이 우려되는 잠재적 위험상황과 개입요령을 관찰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동영상 시청하고 토론하는 형태이다. 토론 포함 시 약 90분, 동영상만 상영될 경우, 29분 분량이다.

본 연구의 위드유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최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거나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학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중복적인 내용은 최소화하고, 바이스탠더에 대한 이해, 역할의 중요성, 개입방법을 미군 시나리오 사례와 실제 상담사례 및 악어프로젝트[20]를 참고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간호학교수 5명, 성교육전문가 5명의 자문을 통해 주제이해를 위한 콘텐츠 내용과 난이도, 전달력, 몰입도(분량) 항목을 평가하고 4점을 만점으로 3점 미만 항목이 없을 때까지 피드백을 수용하여 확정하였다.

모바일 기반에서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인지도 높은 성교육전문가에 의해 25분 분량으로 제작되었고, 2020년 12월 17일부터 1주일 간 1회 이상 참여하고, 프로그램 영상시청 여부를 확인을 위해 간단한 퀴즈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C시 소재의 공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과 장교급 군인이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사관 및 장교급 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 목격자개입의 유사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없는 자
- 모바일에 의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자
-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의 적정표본 수는 G Power 3.1.9.2를 활용하여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크기 0.5로 설정하여 사전-사후 2회 평가를 할 경우 45명이다. 협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1차적으로 45명을 모집하였다. 사전조사 시 불성실한 응답자 3명을 제외되어 최종 42명이 분석되었으며, 위드유프로그램 참여 중 3명이 중도탈락하여 39명이 사후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되어 37명이 사후조사 분석에 포함되었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통념, 공감능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바이스탠더 도움행동의도로써 동료 도움의도 및 타인 도움의도를 측정하였다. 성통념, 바이스탠더 효능감, 바이스탠더 도움행동의도 도구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가의 번역(역번역 2회) 도구를 간호학 교수 5명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통해 확정하였다.

2.4.1 성통념

성폭력과 관련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나 가치관을 의미하는 성통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Updated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21]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소 행동에 대한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성폭력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4개 영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통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의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2 공감능력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공감으로 개념화했으며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는 Davis [22]가 개발한 대인간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이[23]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한국어판 IR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0~4점의 5점 척도이며 부정문항의 경우 역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등의[19]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0, 본 연구에서 또한 .80이었다.

2.4.3 바이스탠더 효능감

바이스탠더 효능감은 바이스탠더 개입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Banyard 등이[19]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의 상황에 대한 바이스탠더 행동 확신 정도를 '할 수 없다' 0%에서 '매우 확신적으로 할 수 있다' 100% 중 정수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문항의 평균을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바이스탠더 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4 동료 도움의도

동료 도움의도는 Banyard 등이[24] 개발한 동료 도움의도 도구(Intent to help friend scale)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각각 동료에게 일어난 다른 폭력 상황에서 바이스탠더로써 도움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10문항이다. 평균점수

가 높을수록 동료에 대한 바이스탠더 도움의도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93,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4.5 타인 도움의도

타인에 대한 도움의도는 Banyard 등이[24] 개발한 타인 도움의도 도구(Intent to help strangers scale)에 의해 측정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7문항이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바이스탠더로서의 도움의도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94,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2.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이후 (KYU-2020-174-01), 2020년 12월 17일에서 12월 23일 간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연구참여에 희망하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및 참여 및 중단에 대한 자율성과 자료의 익명성 보장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이는 모바일을 통해서 반복 설명되었으며 사전 동의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모바일에 의해 위드유프로그램이 링크되었으며 1주일 후에 사후평가가 실시되었다. 사전 및 사후평가 시 설문지 작성의 소요시간은 평균 15분 이내로 확인되었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위드유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대상자의 성통념, 공감능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동료 도움의도 및 타인 도움의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위드유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대상자의 성통념, 공감능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동료 도움의도 및 타인 도움의도의 정도는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14명(33.2%), 20대와 40대가 13명(31.0%)이었으며, 남자가 더 많았고(26명, 61.9%),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21명으로 동일하였다. 복무형태로는 장기복무자가 28명(66.7%), 복무기간은 10년 이상(20명, 47.6%)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Table 1과 같이, 이들 중 사후평가 전 탈락자 5명의 특성은 20대 3명, 30대 2명이면서 남자이고, 부사관 4명, 장교 1명, 의무복무자(국방의 의무) 1명, 장기복무자 4명, 복무기간이 3년 미만자가 1명, 3년에서 5년 미만자가 1명, 5년에서 10년 미만인 자 4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성희롱 관련 교육 참여경험이 있었다.

3.2 프로그램 전후 대상자의 성통념과 공감능력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램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성통념수준과 공감능력

수준을 편의 상 사전 및 사후조사 시에 포함하여 파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통념수준은 사전조사에서 4.51점(±0.46), 사후조사에서 4.36점(±0.48)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50, p=.137$). 공감능력수준은 사전조사에서 3.38점(±0.30), 사후조사에서 3.40점(±0.35)으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15, p=.885$).

3.3 가설검정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 위드유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가설 1의 “위드유프로그램 참여자의 목격자효능감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는 프로그램 전 80.61점(±18.66)에서 프로그램 후 87.47점(±13.91)으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Pre-test		Post-test	
		n	%	n	%
Year	< 20	1	2.4	1	2.7
	20 - 29	13	31.0	10	27.0
	30 - 39	14	33.2	12	32.4
	40 - 49	13	31.0	13	35.2
	≥ 50	1	2.4	1	2.7
Gender	Male	26	61.9	21	56.8
	Female	16	38.1	16	43.2
Status	Noncommissioned officer	21	50.0	17	45.9
	Officer	21	50.0	20	54.1
Military service type	Obligation	13	31.0	12	32.4
	Long-term	28	66.7	24	84.9
	Extended	1	2.4	1	2.7
Duration of military service	< 3	12	28.8	11	29.7
	3 - < 5	3	7.1	2	5.4
	5 - < 10	7	16.7	4	10.8
	≥ 10	20	47.6	20	54.1
Participation in education	Yes	42	100.0	37	100.0

Table 2. The effects of ‘WithYou’ Program

Variables	Scale range	Pre-test		Post-test		t	p
		Mean	SD	Mean	SD		
Sexual violence myth	1-5	4.51	0.46	4.36	0.48	1.50	.137
Empathy	0-4	3.38	0.30	3.40	0.35	0.15	.885
Bystander efficacy	0-100	80.61	18.66	87.47	13.91	1.86	.066
Intent to help friend	1-5	4.13	0.43	4.33	0.42	2.07	.041
Intent to help strangers	1-5	2.96	0.61	3.46	0.78	3.16	.002

6.86점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t=1.86, p=.066$), 기각되었다.

가설 2의 “위드유프로그램 참여자의 동료(친구)에 대한 목격자행동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는 프로그램 전 4.13점(± 0.43)에서 프로그램 후 4.33점(± 0.42)으로 0.2점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2.07, p=.041$), 지지되었다.

가설 3의 “위드유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방인에 대한 목격자행동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는 프로그램 전 2.96점(± 0.61)에서 프로그램 후 3.46점(± 0.78)으로 0.5점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3.16, p=.002$), 지지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성폭력 상황을 목격한 군인의 목격자개입에 대한 효능감과 개입행동의도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기반의 위드유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연구이다. 협조기관의 여건 상 단일군 전후설계로 수행되어 연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바이스탠더 개입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군인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바이스탠더 개입 훈련용 SCREAM Theater를 활용한 1회기 프로그램을 통해 성통념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와[25] 친사회적 행동 혹은 도움행동과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와는[12] 다르게 대상자의 성통념과 공감능력수준은 프로그램 전후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은 비교연구와[25] 같은 1회기 프로그램이지만 군 성교육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자가학습 동영상자료의 몰입도를 고려하여 중복적인 주제는 줄이고, 바이스탠더 개입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에서 두 개념은 바이스탠더 개입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확인하고자 포함되었기에 보여진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성통념을 평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통념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바이스탠더의 도움행동에 무엇보다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9].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은 바이스탠더 개입의도의 영향요인 이면서 인종소수자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바이스탠더 개입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이었고[12], 타인을 도우려는 이타행동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 유발된다고 보는 관점[26, 27]에서보면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여 가해행동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격자로서의 도움행동이 발현되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의 이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도 성인에게는 다를 수 있다. 군 간부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기 및 중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므로 공감능력에 대한 보다 다양한 대상자와 부대 환경에서 탐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설 1의 바이스탠더 효능감은 프로그램 후에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바이스탠더 개입 교육 프로그램이 바이스탠더 효능감에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메타분석 결과[28]와 SCREAM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의 바이스탠더 효능감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는[10]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의 바이스탠더 효능감이 6점 이상 향상되어 프로그램에서 바이스탠더 효능감을 촉진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성폭력 상황에서 바이스탠더 개입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는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효능감을 활성화시킬 전략이 더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효능감은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며[28], 바이스탠더 도움의도와 상호 효과를 높여주는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10], 성폭력 상황에서 개입행동의도와 실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29-31].

가설 2와 3의 동료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의도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메타분석 결과와[28] 단기 프로그램으로도 도움의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10]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교 연구들은 학생 대상이거나 일부 취약계층의 낙인화를 저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28]. 온라인 플랫폼에서 SCREAM Theater를 근간으로 성폭력 상황에서의 바이스탠더 개입을 촉진하는 미군 교육자료가 많이 확인되지만, 이를 실험연구설계로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대상자, 표본 규모, 연구설계 구성과 프로그램 회기 수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와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이 동료나 타인에 대한 도움의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반면 바이스탠더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SCREAM같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목격자개입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1회기 혹은 3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1회기보다는 3회기가 일반적으로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경우에 표본 수를 확대하거나 3회기 프로그램과 같이 동기부여를 위한 예비 회기나 토론의 형태를 혼합하여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에 대한 대상자들의 참여의지나 업무과다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회기나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접점을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군 위드유프로그램은 부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바이스탠더 도움의도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효과검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가설 1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의 바이스탠더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는 기각되었고, 가설 2, 3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의 동료 및 타인 도움의도는 높아질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를 토대로 단 회성 프로그램임에도 이를 2회 이상 시청하거나 토론학습을 추가한 반복연구와 소주제를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또한 연구결과와 정당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대조군 전후 설계로 시도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 J. Holland, V. C. Rabelo & L. Cortina (2016). See Something, Do Something: Predicting Sexual Assault Bystander Intentions in the U. S. Milita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8, 3-15. DOI : 10.1002/ajcp.12077

[2] J. Hwang, J. Joo, S. Jeong & I. Kwon. (2015). Preliminary Study for the 2016 Survey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Seoul : Hanhak Publishing.

[3] T. Kim. (2011). Realities of Sexual Violence and it's Countermeasure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9, 5-44.

[4] M. A. Mengeling, B. M. Booth, J. C. Torner & A. G. Sadler. (2014). Reporting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Who Reports and why most Servicewomen don'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7(1), 17-25. DOI : 10.1016/j.amepre.2014.03.001

[5] I. Kwon, E. Kim, H. Y. Kim & D. O. Lee. (2004). *A Survey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http://www.humanrights.go.kr>

[6] T. H. Witte, D. M. Casper, C. L. Hackman & M. M. Mulla. (2017). Bystander Interventions for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on College Campuses: Are we putting Bystanders in Harm's Wa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5(3), 149-157. DOI : 10.1080/07448481.2016.1264407

[7] K. R. Moon. (2018.3.6.). *The solidarity between MeToo and WithYou*. The Kyunghyang Shinmun. <http://biz.khan.ac.kr>

[8] V. L. Banyard. (2008). Measurement and Correlates of Prosocial Bystander Behavior: The case of Interpersonal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23(1), 83-97. DOI: 10.1891/0886-6708.23.1.83

[9] T. Reynolds-Tylus, K. M. Lukacena & B. L. Quick. (2019).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Normative Social Behavior to Bystander Intervention for Sexual Assault.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7(6), 551-559. DOI: 1080/0744848.2018.1499648.

[10] S. McMahon, N. A. Peterson, S. C. Winter, J. E. Palmer, J. L. Postmus & R. A. Koenick (2015). Predicting Bystander Behavior to Prevent Sexual Assault on College Campuse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Int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6, 46-56. DOI : 10.1007/s10464-015-9740-0

[11] J. D. Foubert, J. Langhinrichsen-Rohling, H. Brasfield & B. Hill. (2010). Effects of a Rape Awareness Program on College Women: Increasing Bystander Efficacy and Willingness to Interven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7), 813-827. DOI : 10.1002/jcop.20397

[12] N. Abbott & L. Cameron. (2014). What Makes a Young Assertive Bystander? The Effect of Intergroup Contact, Empathy, Cultural Openness, and In-Group Bias on Assertive Bystander Intervention Inten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0(1), 167-182. DOI : 10.1111/josi.12053

[13] J. A. Kim. (2001).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Web-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7(2), 361-375.

[14] J. Y. Lee, S. W. Kim & J. R. Kim. (2013). Analysis of Quality Factors Influencing Learner Satisfaction on

- Mobile Learning Linked to e-learning in Universitie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9(2), 209-240.
- [15] J. Y. Lim, J. Kim & W. Noh. (2019). Effectiveness of a Cost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Focused on Differences between a Web-based Group and a Mobile-based Grou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6(2), 133-144.
DOI : 10.22705/JKASHCN.2019.26.2.133
- [16] C. H. Woo & S. Kim. (2014). Effectiveness of the Military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4(6), 717-725.
DOI : 10.4040/jkan.2014.44.6.717
- [17] D. Romrell, L. Kidder & E. Wood. (2014). The SAMR Model as a Framework for Evaluating mLearning. *Online Learning Journal*, 18(2), 1-15.
DOI: 10.24059/olj.v18i2.435
- [18] Rutgers University. (1991). SCREAM Theater. <http://vpva.rutgers.edu/scream-theater-and-scream-athletes/what-is-scream-theater>
- [19] V. L. Banyard, M. M. Moynihan & E. G. Plane. (2007). Sexual Violence Prevention through Bystander Education: A Experimental Evalu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4), 463-481.
DOI: 10.1002/jcop.20159
- [20] T. Mathieu. (2016). Les Crocodiles. S. K. Maeng. (translation). Seoul: Pureun Gisik. (2016).
- [21] S. McMahon & G. L. Farmer.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 Research*, 35(2), 71-81.
DOI: 10.1093/swr/35.2.71
- [22] M. H. Davis (1980). A Mu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p. 85
- [23] I. Kang, S. Kee, S. Kim, B. Jeong, J. Hwang, J. Song & J. Kim.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48, 352-358.
- [24] V. L. Banyard, M. M. Moynihan, A. C. Cares & R. A. Warner. (2014). How do we know if it works? Defining Measurable Outcomes in Bystander-focused Violence Prevention. *Psychology of Violence* 4, 101-115.
DOI: 10.1037/a0033470
- [25] S. McMahon, C. T. Allen, J. L. Postmus, S. M. McMahon, N. A. Peterson & M. L. Hoffman. (2014). Measuring Bystander Attitudes and Behavior to Prevent Sexual Violenc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2(1), 58-66.
DOI: 10.1080/07448481.2013.849258
- [26] H. J. Cho & N. H. Sohn. (2006).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1), 1-9.
- [27] K. H. Hyun. (2013). *The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Empathic Abilities to School Adaptation and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28] J. Katz & J. Moore. (2013). Bystander Education Training for Campus Sexual Assault Prevention: An Initial Meta-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28(6), 1054-1067.
DOI: 10.1891/0886-6708.vv-d-12-00113
- [29] S. Burn. (2009). A Situational Model of Sexual Assault Prevention through Bystander Intervention. *Sex Roles*, 60(11-12), 779-792.
DOI: 10.1007/s11199-008-9581-5
- [30] D. Exner & N. Cummings. (2011). Implications for Sexual Assault Prevention: College Students as Prosocial Bystande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9(7), 655-657.
DOI: 10.1080/07448481.2010.515633
- [31] M. Moynihan, V. J. Banyard, J. S. Arnold, P. R. Eckstein & J. G. Stapleton. (2011). Sisterhood may be Powerful for Reducing Sexual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Evaluation of the Bringing in the Bystander In-person Program with Sorority Members. *Violence Against Women*, 17(6), 703-719.
DOI: 10.1177/1077801211409726
- [32] S. McMahon, S. C. Winter, J. E. Palmer, J. L. Postmus, N. A. Peterson, S. Zucker & R. Koenick. (2015).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Multi-dose Bystander Intervention Program using Peer Education Theater. *Health Education Research*, 30(4), 554-568.
DOI: 10.1093/her/cyv022

우 정 희(Chung Hee Woo)

[정회원]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정신건강

· E-Mail : createjane@konang.ac.kr